

# 익산시, 과학적 방역사업 본격화

데이터 기반 스마트 방역 체계로 전환... 감염병 안심 도시 조성 나서  
'모기발생 감시장치' 설치·시민 참여형 '모기 민원신고센터' 운영 등

익산시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방역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안심 도시 조성에 나선다.

이진운 익산시 보건소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부터 '모기발생감시장치'를 활용한 과학적 방역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근거중심 매개방제 국가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과학적 방역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민원발생 지역이나 방역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기적 방제를 진행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효율적인 방제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말라리아 매개모기 매개체 감시주기 단축지원 사업(근거중심 매개방제)은 일일 모기발생 감시장치를 설치해 개체수를 분석하는 것이 골자다.

개체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효율 방역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2,800만 원 등 총 5,600만 원을 투입해 일일 모기 감시장비 9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 후부터 18곳 중 사전 채집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기 개체 수가 높게 나타난 △종합운동장 △남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송리문화예술회관 △익산시보건소 △모현공원 △푸른솔커뮤니티 △서동시장과, 시민 이용도와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해 △익산 시민공원 △중앙체육공원까지 포함한 9곳이 최종 선정됐다.

일일모기감시장비는 5~10월 매일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작동한다.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모기를 유인·채집한 뒤 개체 수를 자동 분석·업로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전산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건소는 실시간 모기 밀집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신속한 방제를 실시하게 된다. 시는 모기 발생 추이와 방

제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살충제 남용을 줄이는 이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는 올해부터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온라인 모기민원신고센터'를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의 유선전화·국민신문고 중심 민원접수 방식에서 나아가, 언제 어디서나 모기 민원을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정확한 위치를 민원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접수된 정보는 보건소 방역기동대에 전달돼 즉각적 대응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누적된 민원 데이터를 통해 모기 발생 지역 분석, 취약 지점 파악, 방제 효과 평가 등 과학적인 방역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기관 선정

적극행정 이행 노력 '호평' 받아

군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제도개선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적극행정 이행성과 및 체감도 등 17개 세부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산시는 기관장의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적극 행정 추진 체계를 구축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했으며 우수공무원에 대한 성과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힘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임준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어 적극행정 이행 노력이 가장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작년에는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절차를 체계화하여 10건 이상의 과제를 발굴하고, 간부회의를 거쳐 총 4건의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이후 시민대표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등 시민 참여를 확대했다. 또한, 분기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장애요인을 신속히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공직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우종삼 군산시의원 발의

군산시의회 우종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6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산시 관내 중소기업들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종삼 군산시의원

사랑,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특히 군산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ESG 경영을 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경영진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ESG 실천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과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가능해져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종삼 의원은 "이제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 경쟁력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산의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 역량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 축제로 전국을 사로잡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서 대중선호도 부문 '우수상'

3년 연속 수상 쾌거... 대표축제·관광상품 등 홍보 '성과'

익산시가 대표 축제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며 관광도시의 역량을 입증했다.

익산시는 '제5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에서 대중선호도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2023년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과 2024년 마케팅 부문 최우수상, 2024년 마스코트 부문 우수상에 이은 3년 연속 수상으로 관광도시의 위상을 이어갔다.

시는 익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과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77개 지방자치단체 등 100여 개의 기관이 참여했다.

시는 '익산에 반하다'라는 주제로 홍보부스를 구성하고,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 관람객과의 활발한 소통을 이끌어 냈다.

익산의 대표 축제인 △백제국가유산야행 △서동축제 △마한문화대전 △천만송이 국화축제 등을 비롯해 축제와 연계한 열차 관광상품을 소개했다. 특히 관광 마스코트 '마룡'을 활용한



친근한 홍보 방식은 관람객의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익산 9경 3락' 행운 동전 던지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 마룡 관련 상품 팝업 매장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돼 많은 발길을 모았다.

다채로운 홍보와 프로그램에 대한 관람객의 열띤 반응은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로 이어졌고, 대중선호도 부문 우수상이라는 성과로 연결됐다.

한편, 익산시는 올해도 △익산백제 국가유산야행(4월 18~20일) △서동축제(5월 3~6일) △마한문화대전(10월 3~5일) △천만송이 국화축제(10월 24일~11월 2일) 등 사계절 내내 풍성한 축제를 선보이며 관광객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단' 발대식

학부모 20명 단원 위촉... 아동 권리 보호·증진 활동 추진

아동친화도시 익산시가 아동의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기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포터즈단은 익산시가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해 2021년 처음 출범했다.

제3기 서포터즈단은 지역 학부모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시와 긴밀히 협력해 아동 권리 캠페인과 아동정책 홍보 활동 등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또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

제안과 개선 의견을 전달 계획이다.

발대식에서는 단원 위촉에 이어 아동 권리에 대한 성인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은 △참여권 △보호권 △생존권 △발달권 등 아동의 기본권리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다뤄졌다. 아울러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공유해 서포터즈단의 역량을 높였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제3기 서포터즈단의 헌신과 노력은 아동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 통

군산시, 2025년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군산시는 지난 25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25년 군산시 통합방위회의' (의장 군산시장)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안보 동영상 시청 △2024년 통합방위 주요 성과 및 2025년 통합방위 추진계획 △2025년 통합방위태세 확립 추진 방향 및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화랑훈련과 추무훈련을 비롯한 비상대비 훈련을 통해 군산시의 비상대비 역량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관계기관 간 신속한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군부대 관계자의 드론위협에 대한 대비태세 확립과 군산지역 핵심노드 중심의 국가중요시설 방호체계 추진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우리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협의회 의장인 강임준 군산시장은 "앞으로도 통합방위체계가 더욱 확고해질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군산=이재춘 기자

1분기 익산시 통합방위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익산시는 26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2025년 1분기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현을 익산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육군 9585부대 3대대장 등을 비롯한 관련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 전북지부의 안보 동영상 '북한의 대남 위협 전망'을 시청하며 최근 정세를 공유했다. 이어 육군 제 9585부대 익산대대의 '2025년 상반기 주요 훈련 계획' 보고와 기관별 협조 사항 논의가 진행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